

# 소여, 현상학, 모순

김영건(서강대학교)

【요약문】 이 글은 박병철과 이승종의 저술에 대한 박정일의 서평을 중심으로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몇몇 문제점을 고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한다. 첫째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현상학적 양상을 추적하고 있는 박병철의 현상학의 개념이 명백하지 않다. 둘째 『논리철학논고』의 유아론은 경험적 유아론이 아니라 선형적 유아론이다. 셋째 『논리철학논고』의 대상은 감각자료가 아니다. 넷째 우리에게 주어진 소여는 논리적인 것이다. 다섯째 박병철은 이 논리적인 것을 경험에 근거지우는 실책을 범하고 있다. 여섯째 모순의 형식적 개념에 대한 이승종의 비판은 성공적이지 않다. 일곱째 이것은 박정일이 지적한 것처럼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여덟째 모순된 규칙에 대한 이승종의 이해는 박정일이 지적하듯이 잘못되었다.

【주제어】 비트겐슈타인, 박정일, 이승종, 박병철, 현상학, 현상론, 모순, 소여

1. 박정일은 박병철의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현상학적 양상(The Phenomenological Aspects of Wittgenstein's Philosophy)』(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8.)과 이승종의 『비트겐슈타인이 살아 있다면』(문학과 지성사, 2002.)에 대해서 각각 비판적 서평을 보여주고 있다.<sup>19)</sup> 서평 하나는 매우 날카롭게 비판적이지만, 그러나 다른 하나는 글의 정갈성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논점이 분명치 않은 듯이 보인다. 이 글은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두 권의 책에 대한 박정일의 서평을 기초로 해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대한 몇몇 문제들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 2.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과 현상론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현상학적 양상』에서 박병철은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에 대한 본성을 해명하고, 그 중요성을 비트겐슈타인의 전 철학 속에서 검토하려고 한다.”고 그 책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효과

19) 박정일 (2003b), 「박병철 교수의 『비트겐슈타인 현상학의 측면들』, 『논리연구』, 한국논리학회, 6집 2호. ; 박정일 (2003a), 「비트겐슈타인이 살아있다면?」, 『아카필로』, 철학아카데미, Vol 8.

## 42 논리연구 7집 1호

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박정일은 박병철이 주장하고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에 대해서 그것이 현상론의 소박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다음처럼 지적한다.

요컨대, 나에게서는 박 교수의 “현상학”과 “현상론”이 어떤 본질적인 차이를 지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전자는 후자의 소박한 한 가지 형태에 불과하다. 또한 양자가 어떤 본질적인 차이를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의 대등한 것으로 취급해도 무리가 없을 것처럼 보인다. 이제 주목할 것은, 박 교수의 “현상학”에서는 “현상론”과는 달리, 실재와 현상의 구분이 명시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인위적 가설을 부가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경험에 직접 주어진 것이 전부이다. 이제 문제는 그러한 개념 규정이 비트겐슈타인 철학 전반을 설명할 때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며 또 적합한가 하는 점이다.<sup>20)</sup>

박정일에 의하면 박병철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 발견하는 현상학은 현상론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단지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은 실재와 현상의 구분이 문제되지 않으며, 경험에 직접 주어진 것만을 문제삼는다. 박정일은 이러한 현상학의 개념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전반을 설명할 때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며, 또 적합한가 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개념은 적어도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에만 한정해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박정일의 주장이다. 그는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나는 “현상학”과 “현상론”에 대한 구분과 개념규정이 대단히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박 교수의 구분에 따르면 “현상학”은 그저 현상론의 소박한 한 형태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 교수는 이러한 개념 규정 하에서 “물리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개념적 혼동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

20) 박정일 (2003b), pp.164-165.

『논고』의 대상이 러셀의 “물리적인” 감각 자료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할 때의 “물리적”과, 언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논의할 때 “물리(주의)적 언어”와 관련되는 “물리적”은 의미가 상이하다. “언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유의미하려면, “현상학적”과 “물리적”은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논고』와 관련해서 “현상학”이 논의될 때, 그 둘은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박 교수의 “현상학”에서는 실재와 현상의 구분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점은 박 교수의 애초의 규정이 뭔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sup>21)</sup>

박병철이 해명하는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이 현상론의 소박한 형태이며, 더 나아가 “현상학적”이라는 개념이 불분명하다고 박정일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박정일의 지적은 올바른 것처럼 보인다. 분명히 박병철은 현상학과 현상론을 구분하고 있지만, 그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또한 박정일이 지적한 것처럼 “현상학적”인 것과 대조되는 “물리적”인 것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면, 현상학이라는 개념으로 비트겐슈타인 철학 전반을 해명할 때 그 일관성이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왜 현상학이 현상론의 소박한 형태가 되는가?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바로 현상론(phenomenalism)의 개념이다. 이 현상론에 대해서 박병철은 다음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주로 인식론적인 관심으로부터, 현상론자는 우리의 지식이 물자체나 가상계와 반대되는 것으로서 현상계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현상계에만, 즉 우리의 정신 외부에 있는 실제 사물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인상들에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2)</sup>

현상론은 인식론적 주장으로서 우리의 지식은 현상계, 혹은 감각 인상에 한정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현상론에 대한 박병철의 이러한 규정은 애매하다. 칸트의 철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상계는 물자체의 세계와 대조된다. 그러

21) 박정일 (2003b), p.171.

22) 박병철 (1998), pp.18-19.

#### 44 논리연구 7집 1호

나 현상론에서 말하는 감각인상이나 감각소여는 물리적 대상과 대조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현상론이라고 할 때 주로 물리적 대상을 감각소여로 환원하거나 혹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 문장을 감각소여의 문장으로 번역하고자 하는 주장을 의미한다.<sup>23)</sup> 박병철이 강조하는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를 이러한 현상론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처럼 보인다.<sup>24)</sup>

반면에 칸트의 현상론에서 말하는 현상은 아마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경험적 대상들이 될 것이다. 칸트에 의하면 개념체계에 의해서 구성된 이러한 경험적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개념체계로부터 벗어나 있는 물자체의 세계는 알 수 없다. 아마도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언어의 세계와 침묵의 세계가 칸트의 현상계와 물자체에 대조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sup>25)</sup> 그러나 적어도 박병철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훗설의 현상학을 통해서 이 점을 다음처럼 부정한다.

실재 대상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즉 실재가 되기 위해서 초월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은 의식에 내재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훗설의 현상학에서 선험적 환원이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의 하나이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서 실재는 직접적으로 우리 의식에 영향 미치고, 의식과 실재의 상호작용은 그

---

23) 가령 간단한 철학사전인 A Dictionary of Philosophy (Routledge & Kegan Paul, 1976.)에서 A.R.Lacey는 현상론에 대해서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초기 현상론자들은 물리적 대상을 실제적이거나 가능성 감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현상론이 언어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주요 주장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 문장이 무어나 러셀이 감각작용과 구분한 감각자료에 관한 문장으로 의미의 손상이 없이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상론의 주요 논점은 우리는 오직 현상만을 알 수 있고, 그 배후에 있는 알 수 없는 대상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대상에 대한 믿음이나 언급은 현상 자체에 대한 왜곡된 믿음이거나 언급이다."(p.157.)

24) 물론 예외도 있다. John W.Cook은 그의 Wittgenstein's Metaphysics (Cambridge Univ. Press, 1994.)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전 철학을 현상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25) 가령 흥미롭게도 힌티카는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보편적 매체로서 언어에 대한 생각은 칸트주의 이론의 언어적 대응물로서 간주될 수도 있다. .... 그러나 칸트로부터 비트겐슈타인에 이르는 길에서 일어난 것은 단순히 언어적 전환만은 아니다. 지식의 한계와 물자체에 대한 불가지론에 대한 칸트주의의 주장은 .... 어떤 개별적인 언어로부터 독립된 사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의 문맥에서 언어의 한계에 대한 주장과 대응된다. 이것은 의미론에 대한 언표불가능성에 대한 주장 이라기 보다는 언어적 상대론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혹은 그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Jaakko Hintikka는 우리의 지식탐구 활동과 그것이 작동하는 개념적 틀로부터 독립된 사물 그 자체에 대한 불가지론과 그러한 틀이나 활동에 대한 불가지론과 내재적 연결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선험적 지식의 역할'은 언어적 측면에서 언어로부터 추상된 사물에 대한 언표불가능성과 언어와 실재를 매개하는 의미론적 연결에 대한 표현불가능성과의 상호의존성에 대응된다."(Hintikka (1986), pp.4-5.)

결과로서 나타난다. 물론 이것은 현상과 본체의 칸트주의적 이분법에 대한 여지를 마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훗설이 본체의 영역을 제거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험적 환원이 의미하는 바가 칸트가 물자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훗설의 현상학은 현상론으로 떨어지는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소여, 주어진 것은 우리 의식에서 포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식에 초월적인 실제 세계에서 존재하는 실재이다. .... 여기에서 훗설은 칸트가 그러했던 것처럼 '현상'이라는 용어를 '본체'와 대립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상은 의식에 나타나는 절대적으로 직접적으로 주어진 세계의 자료이다. 따라서 선험적 환원을 통해 얻어진 목적과 결과의 하나는 궁극적으로 현상론의 가능성을 추방하는 의식과 실제 사이의 실제적 상호작용을 포함한다.<sup>26)</sup>

과연 그것이 성공적이었는지와는 별개로 하여튼 선험적 환원 혹은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칸트적인 이분법은 사라진다. 이제 우리 의식에 주어지는 직접적인 소여는 감각인상이 아니며,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이다.

박병철은 훗설의 현상학에서 발견되는 칸트적 이분법에 대한 부정을 마찬가지로 러셀이나 무어의 경험론적 철학에서도 발견하고 있다. 그는 다음처럼 말한다.

분명히 러셀에게서 이러한 감각자료들은 물자체에 대립되는 단순한 감각인상이 아닌 것처럼 '일차 성질'에 대립되는 이차 성질이 아니다. 이차 성질이 지각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칸트의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절대공간의 잘못된 개념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러셀은 주장한다. 이것은 러셀이 그의 논변을 현상과 실재라는 이분법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확증해 준다. 현상과 실재라는 칸트적 이분법은 분명히 러셀의 관심이 아니었다. 오히려 러셀은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우리 지식의 확고한 기초를 부여하려고 하였다. 감각자료가 물리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러셀은 그것이 실제적 세계의 구성부분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러셀의 주장이 관념론의 변형된

---

26) 박병철 (1998), pp.22-24.

## 46 논리연구 7집 1호

견해로서 나오는 현상론의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다.<sup>27)</sup>

적어도 훗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칸트적 의미의 물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우리 의식에 주어진 것은 바로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실재이다. 마찬가지로 러셀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직접 주어진 것은 물리적인 감각자료이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실재이다.

러셀과 훗설과의 구조적 대응<sup>28)</sup>,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러셀의 영향<sup>29)</sup> 때문에 박병철은 다음처럼 과감하게 주장한다.

현상학과 관련된 유아론적 생각은 즉각적인 경험의 대상이 세계에 대한 궁극적 분석이 수행될 수 있는 기초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아론적 생각은 우리의 직접적 접근을 현상에만 제한하는 현상론과는 서로 화합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현상학에 함축된 유아론적 사유가 이러한 종류의 제한을 필연적으로 함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따라서 현상론의 마음의존적 성격은 현상학과 유아론의 관계에 대한 토론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이 점은 훗설, 러셀, 비트겐슈타인 등에서 유지되며, 유아론의 사유가 현상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암암리에 보여준다.<sup>30)</sup>

27) 박병철 (1998), p.21.

28) 이 점에 대해서 박병철은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실재론자로서 러셀은 의식과 실재의 상호작용에 대한 훗설의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러셀에게 감각자료는 우리 마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감각자료는 희미한 이미지도 아니며, 실제 세계에 대한 단순한 표상도 아니다. 그것은 실제 세계의 한 부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러셀의 기획, 즉 과학적 지식을 친숙지에 환원하면서 과학적 세계에 대한 논리적 구성을 시도하는 것은 훗설의 현상학과 흥미롭게 비교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진정으로 러셀의 기획은 절대적이며 엄밀한 과학의 근거를 보장하려는 훗설의 현상학적 환원과 구성에 대응한다."(박병철 (1998), p.24.)

29) 이 점과 관련해서 박병철은 다음처럼 주장하고 있다. "러셀이 현상과 본체에 대한 칸트주의적 이분법에 영향 받지 않았고 또한 그것에 관심을 지니지 않았기에, 러셀의 친숙지의 대상에 대한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관을 가졌던 비트겐슈타인이 물자체와 현상의 칸트주의적 이분법을 반영하는 어떤 이론을 전개했을 것 같지 않다. 비트겐슈타인의 초기나 중기 저작 어디에서도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그 본성상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자체와 대립되는 현상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언급을 발견할 수 없다. 러셀에게서 영향 받은 것처럼 감각자료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사용은 그의 관심이 알 수 없는 것으로 남겨진 물자체의 세계가 아니라 현상에만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게 해준다."(박병철 (1998), p.40.)

30) 박병철 (1998), p.58.

이러한 현상학이 박정일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현상론의 소박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과 현상론을 구분하려는 박병철의 시도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박병철이 현상과 실제, 혹은 현상과 본체와 관련해서 러셀이나 경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차원과 훗설의 현상학에서 볼 수 있는 차원을 명백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상학과 유아론의 관계를 설명하는 박병철의 해명에서 볼 수 있듯이, 박병철은 경험적 유아론과 선험적 유아론을 명백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비트겐슈타인의 유아론이 현상학적 입장에서부터 귀결한다고 말하고 있다.

### 3. 『논리철학논고』의 유아론

『논리철학논고』를 현상학적으로 이해하는 박병철의 시도에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박정일은 또한 다음처럼 말하고 있기도 하다.

요컨대 박 교수의 주장의 핵심은 첫째, 『논고』는 말하자면 러셀의 초기 철학의 변형으로서, “대상”은 러셀의 감각자료에 해당되는 것이고, 둘째, “대상”에는 이미 “논리적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논고』의 대상은 러셀의 감각자료와 같이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경험에 직접 주어지는 것으로서 현상학적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논고』 전체는 현상학적 저작이라는 것이다. 나는 『논고』에 “현상학적”이거나 “현상론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논고에서의 비트겐슈타인의 유아론은 그의 기본적인 현상학적 입장의 한 따름 정리”(p.64)라는 박 교수의 주장에는 중요한 통찰이 있다. 만일 그러한 측면과 관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논고』의 유아론은 결코 해명되지 않을 것이다.

현상학을 일종의 현상론으로 간주하는 박정일에게 있어서 『논리철학논고』의 유아론은 결국 현상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논리철학논고』의 대상을 러셀의 감각자료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려는 박병철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박병철의 주장에 중요한 통찰이 있다는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sup>31)</sup>

박병철은 『논리철학논고』의 유아론이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적 탐구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만약 박정일이 지적하듯이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이 현상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러셀과 같은 경험론자나 현상론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험적 유아론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sup>32)</sup> 박병철은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에 나타나는 대상이 러셀이 말하고 있는 친숙지의 대상이며, 또한 중요한 차이가 있지만 러셀적 의미에서 감각 소여, 즉 물리적 감각소여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감각소여는 물리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인식 주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친숙지의 대상으로 감각소여를 주장한다고 해도 러셀의 실재론이 성립된다.

그러나 퍼트남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주장은 결국 유아론으로

- 31) 박정일은 「비트겐슈타인은 왜 『논고』를 포기했는가?」(박정일 (2003d), 『탈민족주의 시대의 민족담론』, 제 16회 한국철학대회 2003, Vol.3.)에서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논고』를 이루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근본 전제가 또 있다는 것은 지적되어야 한다. 이는 유아론과 관련된 것으로서, 비트겐슈타인 중기 철학에서 ‘현상학’이라고 부른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만일 우리가 구문론, 의미론, 그리고 화용론의 틀에서 언어를 바라본다면, 앞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은 화용론이다. 화용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언어 사용자이다. 즉 우리가 앞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이 바로 언어 주체와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논고』의 언어 주체는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감각하고 지각하며, 사고하고 이해하며, 세계 속에서 일련의 경험을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언어 주체에 대해서 ‘유아론이 뜻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T, 5.62)고 말한다.”(p.29.) 박정일에 의하면 『논고』의 화용론, 그 감추어진 화용론에서 중요한 것이 언어 사용자이다. 이 언어 사용자는 언어주체일 뿐만 아니라, 감각, 지각, 사고, 이해하는 경험적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에 “유아론이 뜻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는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이 덧붙여져, 결국 비트겐슈타인은 경험적 자아만 존재한다는 유아론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비트겐슈타인의 주장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철학적 자아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신체가 아니다. 또 심리학이 다루는 인간 영혼도 아니다. 그것은 세계의 부분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주체, 즉 세계의 한계이다.”(T, 5.641) 박정일은 또 다른 곳에서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책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경험적인 것이지만, ‘형이상학적 주체’로서, ‘철학적 자아’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의 논리적 요청이며, 경험을 비로소 가능케 하는 조건인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아론이 뜻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다만 그것은 말해질 수 없고, 스스로 드러날 뿐이다.’ ..... 이 주체는 어떤 의미에서 각각 삶, 따라서 세계와 시각의 한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어떤 과정이나 능력과 관련된 한계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철학적인 자아가 봉착하는 한계라는 의미에서이다. 이 때 그 ‘한계’는 선험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박정일 (2003c), pp.181-183.) 여기에서의 주체는 경험적 자아가 아니라, 형이상학적 자아, 철학적 자아, 혹은 “경험을 비로소 가능케 하는 조건”, 즉 선험적 주체, 선험적 자아로서 나타난다.
- 32) 가령 박정일은 다음처럼 말한다. “사실상 『논고』는 ‘유아론’에 이르러서 총체적 반전을 겪는다. 세계가 나의 세계(T, 5.62)이고, 세계와 삶은 하나(T, 5.261)이며, 오직 나만이 존재한다는 주장으로부터, 존재론에서 논의되었던 세계는 우리의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각하는 바의 세계라는 점이 판명된다. 요컨대, 세계나 사실은 물리적인 존재자가 아니라 차라리 현상론적인, 또는 현상학적인 것이었음이 드러난다. 바로 이러한 현상론적인, 또는 현상학적인 주장들을 떠받드는 일련의 전제들이 곧 『논고』의 근본적 전제인 것이다.”(박정일 (2003d), p.29.)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박병철의 주장은 결국 『논리철학논고』의 대상이 감각소어라면 왜 유아론에 떨어질 수 없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 구조와 용어의 분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훗설과 비트겐슈타인에게는 흥미로운 대응이 있다. 비트겐슈타인에게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주어진 대상을 골라낼 수 있는 언어이다. 그림이론은 이러한 언어의 요소문장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표상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반면에 진리함수이론은 이 그림 생각을 언어의 모든 명제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비트겐슈타인의 도식은 인지적으로 유의미한 모든 것을 즉각적 경험에 환원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각적 경험으로의 이러한 환원은 『논리철학논고』의 뒷 부분이나 중기 저작에서 유아론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왜냐하면 친숙이라는 생각에 대한 강조는 필연적으로 문제되는 '나'나 자아에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이다.<sup>33)</sup>

대상에 대한 즉각적 경험은 언제나 나의 경험이다. 『논리철학논고』의 대상이 감각자료인 한에 있어서 비록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친숙, 직접적 경험은 언제나 나의 경험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직접적 경험의 주체로서 나는 경험적 자아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자아를 인정하고 있는가? 박병철이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듯이 『논리철학논고』에서 자아는 이러한 경험적 주체가 아니라, 바로 세계의 한계이다.

이 세계의 한계가 바로 나의 한계이며, 또한 논리의 한계이다. 나아가 비트겐슈타인은 “논리는 선형적이다.”(T, 6.13)고 말한다. 논리가 선형적이라는 주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Glock는 다음처럼 말한다.

필연적 명제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 아니다. 또 그것은 실재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에 대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경험적 표상의 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반영한다. 칸트와 대조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은 더 이상 심적 기제에 놓여 있지 않다. 논리는 사유의 본성과 한계를 탐구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재를 표상하는 것

33) 박병철(1998), pp.55-56.

이 사고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유의 언어적 표현에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수행된다. 이러한 한계들은 논리적 구문론에 의해서, 기호들의 조합이 유의미한지를 결정하는 규칙의 체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논리적 구문론은 참과 거짓의 문제에 선행한다. 그것은 경험적 명제에 의해서 전복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에 반하는 그 어떠한 것도 유의미한 명제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필연적 명제는 ..... 의미기호체계(symbolism)의 규칙을 반영한다.<sup>34)</sup>

Glock에 의하면 논리는 바로 “경험적 표상의 가능성에 대한 조건”이다. 이러한 논리의 한계가 바로 세계의 한계이며 나의 한계이다. 따라서 이 때 등장하는 자아는 바로 경험적 자아가 아니라 선험적 자아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논리철학논고』의 유아론은 직접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 유아론이 아니라, 논리로부터 비롯되는 유아론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유아론이 소위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박병철의 주장은 경험적 유아론과 선험적 유아론을 명백하게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훗설의 현상학이 지니고 있는 선험적 차원을 올바르게 조망하고 있지 못하다. 박병철이 이야기하듯이 훗설의 선험적 자아가 유의미한 세계를 구성하는 한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논리철학논고』의 형이상학적 자아, 혹은 선험적 자아도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물론 비트겐슈타인이 강조하고 있듯이 이 선험적 자아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대상도 아니며, 세계 밖에 존재하는 어떤 실체로 아니다. 그것은 단지 세계의 한계이다.

#### 4. 『논리철학논고』의 대상

『논리철학논고』에서 나타나는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많은 비트겐슈타인 해석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내었던 문제이다. 그 대상이 러셀이 주장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감각자료에 해당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경험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며, 또 대상에는 이미 논리적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박병철의 주장에 대해서 박정일은 세 가지 비판을 하고 있다.

첫째 “『논고』의 대상이 러셀의 감각자료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무리한 주장

34) Hans-Johann Glock (1996), p.199.

이고 설득력이 없다.” 둘째 『논고』의 대상이 인식 주체와 독립적인 존재자로서 물리적이고 경험에 직접 주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은 “화해할 수 없는 것을 화해시키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셋째 “『논고』의 대상에 논리적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로 보인다.”

나는 박정일의 첫째 비판과 둘째 비판에 대해서 찬동한다. 그러나 셋째 비판은 다소 분명하지 않다. 박정일은 『논리철학논고』의 대상이 러셀이 말하는 감각소여와 같은 것일 수 없다고 다음처럼 주장한다.

러셀은 감각 자료의 예로서, “색채, 모양, 견고함, 유연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논고』에서는 어떤 대상의 예도 제시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만일 대상이 감각자료와 같은 것이라면 비트겐슈타인에게는 어떤 예를 제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특히 『논고』에 따르면, 색깔은 대상의 하나의 형식이며(2.0251), 또 대상은 색깔이 없다(2.0232). 이 언급만으로도 우리는 양자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이와 관련된 박 교수의 논점은 혼란스럽다. 그는 “색깔들은 비트겐슈타인에게 현상학적 대상들의 예이다”(p.85.)라고 말하면서, 또 비트겐슈타인이 “색깔들을 대상의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p.135)는 것을 지적한다. 과연 이 두 언급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는 자못 흥미롭다. 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경험은 감각자료와 같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것이 사태(대상들의 결합)인지, 또는 요소명제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분석의 개념과 논리의 적용(5.557)이 확정되고 개입되어야 한다.

박정일이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듯이 비트겐슈타인은 세계의 실체가 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에 관심조차 없는 듯이 말한다. 만약 박병철이나 힌티카가 주장하고 있듯이 그 대상이 감각자료이라면 비트겐슈타인이 대상이 무엇인지, 또한 요소명제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sup>35)</sup> 마찬가지로 그 요소명제가 색깔에 대한 명제를 포함한다고 해

35) 이 점에 대해서 이승중은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논고』 체계를 러셀의 논리적 원자론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해석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두 체계는 표면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점에서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비트겐슈타인은 요소명제, 그것을 구성하는 이름, 그리고 이름의 지시체인 대상의 실례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러한 예를 찾는 것이 철학이나 논리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이승중 (2003), p.290.) 그러나 박정일에 의하

## 52 논리연구 7집 1호

도, 박정일이 지적하고 있듯이 『논리철학논고』에서 “대상은 색깔이 없다.”(T, 2.0232) 적어도 이 점에서 『논리철학논고』의 대상은 박병철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즉각적 경험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박정일은 “대상에 대한 경험”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요소명제의 결정은 논리적 분석이 확정되고 개입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박정일의 지적도 올바른 것처럼 보인다. 만약 박병철이 주장하듯이 『논리철학논고』가 우리의 즉각적 경험을 기술하려는 것을 그 과제로 삼고 있다면, 아마도 그 즉각적 경험의 대상, 즉 감각자료가 무엇인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논리철학논고』의 과제는 비트겐슈타인이 그의 서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언어와 사유의 한계를 긋는 것이다. 즉 『논리철학논고』의 핵심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즉 세계를 그림그릴 수 있는 언어의 가능성과 그 언어의 구조를 해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5. 논리적 형식과 소어

박정일은 거의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소위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소어’와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경험, 의식, 친숙지, 감각자료 등을 강조하는 박병철의 해명 때문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비트겐슈타인의 전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어이다. 『논리철학논고』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바로 언어의 한계이다. 우리는 이 앞에서 우리는 걸음을 멈추어야 한다. 멈추지 않는다면? 아마도 무

---

면 비트겐슈타인이 “『논고』 이후에 ‘눈앞의 이 점은 파란색이다’와 같은 명제가 요소명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이승종 (2003), p.77.)는 것이 또한 이승종의 주장이다. 이러한 이승종의 주장에 대해서 박정일은 그것이 “사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해」에서조차 ‘원자 형식, 요소명제의 형식은 예견될 수 없다’라는 언급이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논문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분명하게 언급했던 것은 ‘수들이 요소, 원자명제들의 형식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눈앞의 이 점은 파란색이다’와 같은 명제에서는 어디에 수가 들어가 있는가”(박정일 (2003a), pp.181-182.) 이승종에 대한 박정일의 이러한 비판은 마찬가지로 박병철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가령 남기장은 이승종에 대한 서평에서 박정일과 마찬가지로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아무튼 평자는 저자가 왜 비트겐슈타인이 ‘이것은 빨간 색이다’를 요소 명제로 인정했다는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 주장은 단순 대상을 현상론자들이 말하는 감각 자료 같은 것으로 볼 소지를 주며, 비트겐슈타인을 러셀이나 논리적 실증주의자들과 비슷한 철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길을 터줄 수 있다.”(남기창 (2002), p.267.)

의미(Unsinn)한 철학적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어의 한계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논리적 형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것은 분명히 감각인상도 아니며 감각자료도 아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것이며 또는 개념적인 것이다. 박병철은 다음처럼 말한다.

그 철학적 전 생애를 통해서 비트겐슈타인의 주요 관심은 우리의 즉각적 경험에 향해 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즉각적 경험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초기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즉각적인 소어의 본성은 그것에 논리의 가능성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의 기초를 즉각적 경험 안에서 보았다는 사실은 그의 철학을 일종의 현상학으로 만드는 것이다. 『논리철학논고』에서 모든 논리적 형식은 즉각적으로 주어진 경험의 대상의 논리적 형식의 조합이다.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경험은 언어에 의해서 이해되고 파악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궁극적 매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즉각적인 경험을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다.<sup>36)</sup>

나는 이러한 박병철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박병철에 의하면 논리의 가능성은 즉각적인 경험에 의존해 있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이 즉각적인 경험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 그러나 논리와 경험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논고』에서 다음처럼 말한다.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경험'은 어떤 것 혹은 다른 것이 사물의 상태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

36) 박병철 (1988), p.vii-viii.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가령 박병철은 이 점을 다음처럼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그 논리적 형식과 함께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기본적 가정은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에서 결정적이다. 대상에 대한 이 독특한 견해, 즉 러셀의 친숙지이론의 변형은 논리적 가능성뿐만 아니라, 우리 언어의 모든 가능한 의미, 따라서 사유를 즉각적 경험에 근거시킨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우리의 언어가 그 의미를 대상과의 친숙지로부터 얻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궁극적 구조를 반영하는 전체 논리도 즉각적 경험에 의존한다. 우리 언어의 모든 복합적인 의미와 논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즉각적 경험에 주어진 단순한 대상의 논리적 형식에 의존해 있다."(pp.206-207.)

## 54 논리연구 7집 1호

나 이것은 경험이 아니다. 논리는 모든 경험에 선행한다. 즉 논리는 무엇이 그렇게 있다는 것에 선행한다. 논리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에 선행한다.(T, 5.552.)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경험 아닌 경험이며, 하여튼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는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을 제외하고 오히려 논리는 모든 경험에 선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를 의식에 나타나는 즉각적 경험을 주목함으로써 해명하고자 했던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의도라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그것이 박병철의 해석처럼 비트겐슈타인의 의도라고 해도, 그것은 아마도 별 설득력이 없는 작업일 것이다. 왜냐하면 즉각적인 경험에 논리를 정초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실패는 이미 경험론자의 작업을 통해 잘 목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박병철은 “『논리철학논고』에서 모든 논리적 형식은 즉각적으로 주어진 경험의 대상의 논리적 형식의 조합”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주장도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논리철학논고』의 소위 논리적 원자론이 대상이라는 논리적 원자가 아니라, 사태라는 논리적 원자에 대한 것임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7)</sup> 비록 “사태나 사물의 상태가 대상이나 사물의 조합”(T, 2.01)이라고 할지라도, “대상 자체에 이미 사태의 가능성이 씌어져 있어야만 한다.”(T, 2.012) 즉 “모든 것들은 가능한 사태의 공간 속에 있어야만 한다.”(T, 2.013) 따라서 대상의 논리적 형식, 혹은 “대상의 형식은 사태 안에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다.”(T, 2.0141)

아마도 『논리철학논고』의 대상에 대한 박정일의 세 번째 비판은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셋째, 『논고』의 대상에 논리적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내게는 명백한 오류로 보인다. 박 교수는 이 “포함”이라는 용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

37) “만약 그것에 의하여 명제들이 구성되는 일반적 형식이 주어진다면, 그것과 함께 논리적 작용에 의하여 한 명제로부터 다른 명제가 산출될 수 있는 일반적 형식이 주어진다.”(T, 6.002.)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대상의 논리적 형식이기 보다는 명제의 논리적 형식이다.

표현하고 있다: “대상들이 이미 논리적 형식을 구비하고 있다(equip with)”, “어떻게든 이러한 형식은 대상들에 짜여져 있다(built into)”, “대상들이 결합되는 방식은 대상들 자체에 씌어져 있다(written into)”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박 교수가 놓치고 있는 것은 『논고』에서 “논리적”인 것은 항상 “참-거짓”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대상에 “논리적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대상만으로도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로서 전혀 옳지 않은 것이다. 대상은 형식을 지니며, 또 “논리적 형식”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은 논리적 형식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는 『논고』에서 명제가 뜻을 지니지만, 뜻을 포함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참고: T, 3.13). 그리고 이런 식의 어법이 전혀 모순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자. 예컨대, 나는 심장을 지니고 있고 심장은 나의 신체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나는 집을 지니고 있으나 집은 나에게 포함되지 않는다.<sup>38)</sup>

박정일은 대상이 논리적 형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박병철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 오히려 대상은 논리적 형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상은 논리적 형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을 지니고 있다, 혹은 갖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의 차이가 이 논리적 형식과 관련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매우 불분명하다. 아마도 “지님”과 “포함”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려는 근거는 “대상만으로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제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말한다. 그리고 대상의 언어적 대응물로서 이름이 지칭체(Bedeutug)를 가지고 있다면, 명제는 의미(Sinn)를 가지고 있다. 의미를 지닌 명제 안에서 비로소 이름이 대상을 지칭한다. “지님”과 “포함”을 구분하려는 박정일의 주장은 이 점을 분명하게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대상이 아니라 명제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구태여 “지님”과 “포함”을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

38) 박정일 (2003b), p.167.

## 6. 경험과 논리

소위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현상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처럼 그 현상학은 “문법적”인 것과 관련된다. 문법적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비경험적이며, 개념적이며 논리적인 것이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으로부터 현상학적 양상을 포착하려는 박병철의 시도는 역설적으로 이 점을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오히려 그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경험, 감각자료, 감각적 소여만을 주목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논리적인 것, 문법적인 것, 그리고 개념적인 것들이 오히려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sup>39)</sup> 적어도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논리적인 것이며, 형식적이고, 개념적인 것이며 또한 문법적인 것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의미의 세계, 혹은 언어의 세계가 주어진다. 나아가 논리적 형식, 개념적 규칙과 문법적 규칙 등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은 모두 우리의 언어 속에서 드러난다. 그것들은 우리의 언어와 사유를 형성하는 구조들이다. 적어도 『논리철학논고』에서 우리는 이러한 틀의 두 가지 극단적 경우를 다행스럽게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향진명제와 모순명제이다.

“명제는 논리적 공간의 한 위치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공간 전체는 그것에 의해서 이미 주어져 있어야 한다. ..... 그럼을 둘러싸고 있는 논리적 골격은 논리적 공간을 결정한다. 명제의 힘은 논리적 공간 전체를 관통해서 이루어진다.”(T, 3.42)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논리적 공간, 혹은 셀라스(W.Sellars)의 표현을 빌려 이성의 논리적, 추론적 공간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 공간이 박병철이 시

39) “논리적 분절(articulation) 혹은 훗설적 의미에서 직관적(eidetic) 분절이 대상의 경험과 함께 주어진다. 특징은 현상학적 환원과 같은 복잡한 장치를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오히려 언어의 가능성이 대상과 함께 주어진다는 특성이 자연스럽게 현상학적 세계를 반영하는 현상학적 언어에 비트겐슈타인의 관심을 향하게 하고 있다.”(박병철 (1998), p.207.) 즉각적 경험에서 주어지는 것은 논리적 형식을 지닌 대상이다. 따라서 우리의 즉각적 경험의 대상은 단순한 감각자료는 아니다. 그러나 박병철은 그 감각자료와 함께 주어지는 논리적 형식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별다른 고찰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도하는 것처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구성할 수 있는가? 박병철의 주장처럼 대상 속에 이미 논리적 형식이 구비되어 있고, 또는 대상과 함께 범주화된 작용이 이루어진다면, 그 논리적 형식과 범주의 공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논리적 공간이다.

## 7. 논리적 공간과 모순

이승종은 『비트겐슈타인이 살아 있다면』에서 이러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순의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고 있다. 이승종은 우선 『논리철학논고』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명제와 그림 명제, 즉 비논리적 명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일치는 다루고 있다. 그는 이러한 불일치 혹은 모순에서 논리적 명제의 형식성이나 논리성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사유 여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유의 여정이 특히 모순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모순에 대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태도는 그의 철학관과 근본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그는 모순의 궁극적 기준이나 의미를 찾아내려 하기보다는 각각의 모순이 어떻게, 그리고 왜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모순은 비의미(Unsinn)의 영역과 인접해 “무엇이 말할 수 없는 것인가”를 보여준다. 비트겐슈타인은 모순을 통해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내려 한다. 모순의 철학적 중요성은 모순의 출현에 대한 우리의 깊은 반성과 성숙한(재빠른 해결이나 감정적 거부가 아닌) 대응에서 찾아진다. 모순의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모순을 재고하게끔 한다는 데 있다.<sup>40)</sup>

이승종에 의하면 모순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철학적 반성과 성숙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모순은 해결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해소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모순은 우리의 철학적 반성을 위한 부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별히 이승종은 모순의 해결과 모순의 해소를 날카롭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40) 이승종 (2002), p.181.

헤르츠가 그랬듯이 비트겐슈타인도 철학적 난제에 연루된 모순이나 역설의 해결이 아닌 해소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 해소는 철학적 난제를 야기하는 바로 그 물음이 성립될 수 없음을 밝히는 것이다.<sup>41)</sup>

모순의 해결은 모순을 제거할 새로운 문법적 규칙을 찾는 것과 같은 수학적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모순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보이기 위해 수학의 현황을 서술하는 것은 철학자의 과제이다.<sup>42)</sup>

비트겐슈타인이 모순의 해결보다는 모순의 해소라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처럼 생각된다. 그런데 왜 모순이 해소되어야 하는가?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모순을 용인할 수 없거나 모순명제가 우리 사유의 한 끝을 결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 $p$ - $p$ ”의 형식이 모순에 대한 필요조건도 아니며 충분조건도 아니라는 이승종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sup>43)</sup>, 여전히 이 형식적 문장은 우리 사유를 제한한다. 나는 비록 후기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점에 있어서는 찬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점이 모순에 대한 이승종의 고찰 속에서 부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트겐슈타인은 색깔 배제의 문제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논고』의 형식적 명제론에서 탈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살펴 본 것처럼 『논고』의 형식적 명제론에 따르면 “A라는 점은 동시에 빨간 색이고 파란 색이다”라는 명제는 상호모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일상 언어의 문맥에서 우리가 그 명제를 모순으로 취급한다는 데 있다. ‘모순’ 개념의 일상적 용법은

41) 이승종 (2002), p.17.

42) 이승종 (2002), p.180.

43) ‘ $p$ - $p$ ’의 형식이 모순에 대한 필요조건도 아니며 충분조건도 아니라는 이승종의 주장은 다음 세 가지 논거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 $p$ - $p$ ’의 형식을 갖지 않는 두 명제의 연결도 특정한 상황에서 모순을 일으킨다. 둘째 “이것은 빨간 색이고 이것은 빨간 색이 아니다”라는 명제는 ‘ $p$ - $p$ ’의 형식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모순이 아니다. 셋째 어떤 두 명제가 모순을 일으키는지는 그 명제들의 쓰임에 의해서 결정된다. 박정일은 이러한 이승종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은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아가 둘째 근거는 “거짓이며, 만일 이를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라고 간주한다면 이는 심각한 왜곡이 될 것”(박정일 (2003a), p.183.)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논고』의 형식적 명제론과 맞지 않는다. 비트겐슈타인은 일상적 용법을 임의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그 용법을 충실하게 기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sup>44)</sup>

이 부분이 형식적 명제론의 포기를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 명제론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왜 저 명제가 일상적 의미에서 모순인가? 그것은 결국 “A라는 점은 동시에 빨간 색이고 그리고 빨간 색이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sup>45)</sup> 물론 이렇게 번역했을 때 이 문장은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하듯이 세계에 대해서 그 무엇도 말해주지 않는다. 반면에 번역되기 이전의 문장은 이승종이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색깔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곧 “p-p”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승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승종: 형식논리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위의 명제가 사용되는 일상 언어의 영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 명제가 사용되는 문맥을 말입니다. 일상 언어의 영역에서 형식논리학의 규칙들이 언제나 준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순에 대해 형식논리적 접근법이라는 단 하나의 접근법만을 고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바버: 형식논리 체계에 연관시켜 보지만 말고 일상 언어의 문맥에서 모순을

44) 이승종 (2002), p.81.

45) “두 명제의 연결이 ‘p-p’의 형식을 갖는다는 사실은 연결되는 두 명제가 모순의 관계에 있기 위한 충분조건입니까?”라는 케넷 바버(Kenneth Barber)의 질문에 대해서 다음처럼 답변한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빨간 색이고 이것은 빨간 색이 아니다’라는 명제는 분명 ‘p-p’의 형식을 갖지만, 그 명제에 두 번 나타난 ‘이것’이 각각 다른 색깔의 사물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그 명제는 모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승종의 이런 답변에 대해서 다시 바버는 다음처럼 비판한다. “지금 예로 든 경우는 대입규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두 명제의 연결이 ‘p-p’의 형식을 갖는다는 사실이 연결되는 두 명제가 모순의 관계에 있기 위한 충분조건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례로 볼 수 없습니다.” 다시 이승종은 다음처럼 답변한다. “형식논리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위의 명제가 사용되는 일상 언어의 영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 명제가 사용되는 문맥을 말입니다. 일상언어의 영역에서 형식논리학의 규칙들이 언제나 준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순에 대해 형식논리적 접근법이라는 단 하나의 접근법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이승종 (2002), pp.306-307.) 난 이러한 이승종의 답변이 바버의 비판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것은 빨간 색이고 동시에 빨간 색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 아무리 일상 언어의 영역에서 사용된다고 해도 모순이 아니란 말인가? 박정일도 이승종의 이러한 “대답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박정일 (2003a), p.184.)이라고 말하고 있다.

## 60 논리연구 7집 1호

고찰하자는 말인데 그렇다면 모순과 연관되는 수수께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승중: 수수께끼는 해소됩니다. 사실 애초부터 모순과 연관된 수수께끼는 없었으니까요. 다만 모순에 대한 그릇된 시각에서 그러한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 것뿐이죠.

바버: 그렇다면 결국 비트겐슈타인은 모순에 대한 형식적 개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셈이군요.

가버: 비트겐슈타인이 모순에 대한 일반적 언명의 부적합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에 대한 형식적 개념이 두 명제가 모순의 관계에 있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의 지적과 아울러 모순에 대한 형식적 개념, 더 나아가서는 형식논리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트겐슈타인은 모순의 일상적 용법을 모순에 대한 형식논리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p.307.)

이승중의 주장처럼 일상 언어의 영역에서 형식논리학의 규칙들이 언제나 준수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형식논리학의 규칙 중에서 가령 모순율처럼 가장 근본적인 규칙도 그런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가버의 답변에 대해서 이승중은 찬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모순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이 모순에 대한 형식적 개념에 대한 비판, 더 나아가서 형식논리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것은 모순의 일상적 용법을 모순에 대한 형식논리보다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순에 대한 형식적 개념이 직접적으로 일상 언어의 영역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모순들을 다룰 수 없다고 해도, 그것이 곧 이러한 형식적 개념의 폐기를 의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형식논리학이 보여주는 진리함수성이나 외연성에 대한 비판이 곧 모순의 형식적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도 성립될 수는 없을 것이다.

## 8. 형식적 명제론과 의미론적 명제론의 모순

형식 논리학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순과 일상 언어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순을 명백하게 구분하려는 이승중의 의도는 『논리철학논고』를 형식적 명제

론과 의미론적 명제론의 모순으로 간주한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형식적 명제론이 포기되면서 이러한 모순이 해체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에 따라 'p.p'의 형식이라도 모순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또한 단지 'p.p'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러한 형식으로 포착할 수 없는 것까지 모순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일상언어의 영역에서 모순이다.

그러나 박정일은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에서 이승종이 발견한 형식적 의미론과 의미론적 명제론의 모순은 허수아비 논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46)</sup> 이승종이 표현하는 것처럼 형식적 명제론과 의미론적 명제론의 모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분명히 논리적 명제와 진정한 명제를 구분하고 있다. 만약 박정일의 지적이 맞다면 비트겐슈타인의 사유 전개를 그러한 모순의 해체과정으로 바라본 이승종의 견해는 문제가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중기철학, 혹은 후기철학은 『논리철학논고』의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 것인가? 이승종이 의미론적 명제론이라고 부른 그림의미론에 대한 부정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는 단지 세계를 그림 그리는 역할만을 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의 언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다양한 사용은 그 나름의 규칙이나 문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마치 하나의 그림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림과 세계의 공통적인 형식인 그림 형식을 전제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가 다양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의 다양한 규칙과 문법을 전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승종이 보여준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이 형식 논리학이나 수학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논리철학논고』에서 논리적인 것들이 담당했던 중요한 기능이 그 이후의 철학에서도 손쉽게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모순은 강요에 가까운 규범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것은 세계에 대해서 아무 것도 이야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순율은 단순한 항진명제에 불과함에도 우리를 제한한다. 이러한 힘의 정체가 이승종에게서는 너무나 쉽게 무시되는 것

46) 박정일은 형식적 명제론과 의미론적 명제론에 대해서 그 용어가 적절하다는 단서가 붙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많은 학자들이 ‘진리함수 이론’과 ‘그림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각각 ‘형식적 명제론’과 ‘의미론적 명제론’이라고 부르고 있다”(박정일 (2003a), p.178.)고 지적한다. 나는 이러한 박정일의 지적에 찬동한다. 그것은 이승종의 명명법이 'p.p'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는 모순문장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특성을 고찰하는 것과 진리함수적 외연논리에 대한 비판을 혼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처럼 보인다. 이것은 『논리철학논고』의 해체를 보여준다는 색깔배제의 문제에 있어서 정작 그 개념적 진리의 본성이 무엇인지 규명하지 않는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 9. 수학적 모순과 규칙

비트겐슈타인과 튜링의 논쟁을 둘러싸고 이승종과 박정일은 서로 비판적 견해를 주고 받고 있다. 박정일에 의하면 이 논쟁에서 이승종의 “몇몇 핵심적인 주장은 비트겐슈타인의 사유를 잘못 파악한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과 이승종의 차이를 두 가지 논제로 정리하고 그에 따라 이승종을 비판하고 있지만, 첫째 논제만 고찰하려고 한다.

이승종은 모순에 대한 수학자의 공포와 승배가 게임의 비유를 수학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박정일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공허하거나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그 어떠한 비유도 무비판적으로 적용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공허한 주장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들고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언명은 이러한 주장과 무관하다.<sup>47)</sup>

이승종은 “형식주의자들이 게임의 비유를 남용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서 만연된 모순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도 이 남용에서, 혹은 오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형식주의자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비판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남용과 오용은 바로 모순에 대한 형식주의자의 태도에 달려 있다. 즉 형식주의자들은 모순을 금지와 동치시키며, 바로 이러한 태도에서 모순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무반성적이며 근거가 없는 것이다.<sup>48)</sup>

박정일은 이러한 이승종의 응답에 대해서 이승종이 논거로 들고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구절이 이승종의 주장을 뒷받침해주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

47) 박정일 (2003a), pp.184-186.

48) 이승종(2002), pp.207-208.

“규칙은 모순을 범해서는 안된다”는 “시계 바늘이 느슨해서는 안된다”는 명령(instruction)과 유사하다. 우리는 이유를 예상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 그러나 첫 번째 경우에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규칙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논리적 근거를 댈 수 없는 문법적 구조와 마주하게 된다.(PG, p.304.)

이 구절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중요하지만<sup>49)</sup>, 그러나 이승종과 박정일의 대립은 모순된 규칙을 규칙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박정일은 다음처럼 말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비트겐슈타인은 모순은 규칙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모순된 규칙은 규칙이 아니라는 것은 비트겐슈타인에게서는 '규정'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참인 언명입니다.<sup>50)</sup>

그러나 이승종은 규칙들이 서로 모순을 일으킬 수 있으며, 모순도 규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것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열린 태도라고 보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처럼 규칙들이 서로 모순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는다. 이러한 열린 태도가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매력이라면 매력이다.<sup>51)</sup> 이승종의 주장처럼 규칙들이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매력적으로 그것을 허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순인 한에 있어서 그것은 해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모순된 규칙들은 왜 해소되어야 하는가? 아마도 그 규칙이 규칙으로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49) 박정일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승종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순과 금지를 동일시하는 “태도”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태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승종은 이 구절을 통해 이러한 태도에 논리적 이유나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읽고 있는데, 논리적 근거를 댈 수 없는 것은 태도가 아니라 문법적 구조라고 박정일은 주장하고 있다.(박정일 (2003a), p.186.) 이러한 박정일의 지적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50) 이승종(2002), pp.206-207.

51) 이승종(2002), p.209.

## 64 논리연구 7집 1호

문법이 분명하게 정해진 체계에 숨은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체계는 모순을 식별할 수 있는 규칙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순은 규칙들이 뒤엎힌 곳에, 문법이 조직화되지 않은 부분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만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문법을 조직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규칙들은 서로 모순을 일으킬 수 없는가?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은 규칙이 아닐 터이기 때문이다.(PG, p.305.)

모순은 문법을 조직화함으로써 제거된다. 또한 “규칙을 공표함으로써”(PG, 305.) 모순을 제거할 수 있다. 그것이 철학적 모순이건 아니면 수학적 모순이건 간에 모순은 해소 혹은 해결되어 제거되어야 한다. 비록 철학자와 수학자 사이에 모순에 대처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그들에게서 공통적인 것은 모순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 박병철이나 이승종의 책들은 모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전체를 문제삼고 있다. 마찬가지로 박정일의 서평도 단지 특정한 문제에만 한정해서 비판적 고찰을 하고 있지 않다. 이승종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 발견되는 모순의 문제를 중심으로 비트겐슈타인의 사유 전개를 일관성 있게 추구하고 있다면, 박병철은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고 있는 현상학과 현상학적 언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일관성 있게 해명하고 있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아마도 단 한 편의 글로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가령 수학기초론과 역설에 대한 이승종의 시도와 그것에 대한 박정일의 비판을 다룰 수 없었고, 마찬가지로 박정일이 “중요한 보물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비트겐슈타인의 중기, 후기철학에서 현상학적 양상을 조망하는 박병철의 시도도 자세하게 검토할 수 없었다. 나아가 사적 언어와 규칙의 문제에서 남기창에 대한 이승종의 비판도 다룰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 글은 박정일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남기창 (2002), 「모순의 철학적 의미」, 『철학과 현실』, Vol. 54.
- 박병철 (1988), *The Phenomenological Aspects of Wittgenstein's Philosophy*, Kluwer Academic Publishers.
- 박정일 (2003a), 「비트겐슈타인이 살아있다면?」, 『아카펠로』, 철학아카데미, Vol. 8.
- 박정일 (2003b), 「박병철 교수의 『비트겐슈타인 현상학의 측면들』」, 『논리연구』, 한국논리학회, 6집 2호.
- 박정일 (2003c),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논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박정일 (2003d), 「비트겐슈타인은 왜 『논고』를 포기했는가?」, 『탈민족주의 시대의 민족담론』, 제 16회 한국철학자대회 2003, Vol. 3.
- 이승종 (2002), 『비트겐슈타인이 살아있다면』, 문학과 지성사.
- Cook, J.W. *Wittgenstein's Metaphysics*, Cambridge Univ. Press, 1994.
- Glock, Hans-Johann (1996), *A Wittgenstein Dictionary*, Basil Blackwell.
- Hintikka, M and Hintika, J. (1986), *Investigating Wittgenstein*, Basil Blackwell.
- Lacey, A.R. *A Dictionary of Philosophy*, Routledge & Kegan Paul, 1976.
- Wittgenstein, L. (PG), *Philosophical Grammar*, Basil Blackwell, 1974.
- Wittgenstein, L. (T), *Tractatus Logico Philosophicus*, Routledge & Kegan Paul, 1961.